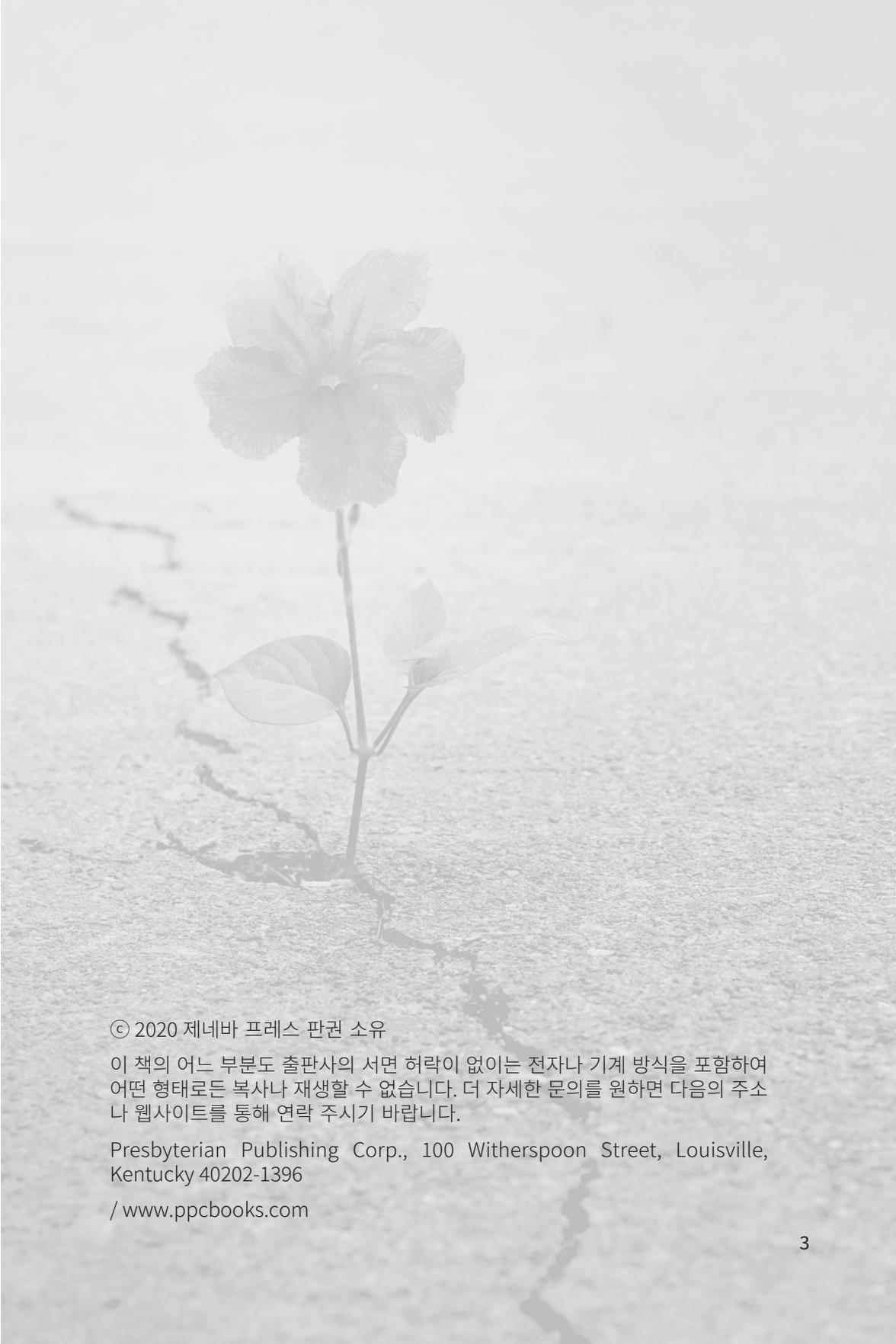


# 예레미야

재앙이 아니라 평안:  
희망으로 읽는 예레미야

유승원 목사 지음





© 2020 제네바 프레스 판권 소유

이 책의 어느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락이 없이는 전자나 기계 방식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복사나 재생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면 다음의 주소나 웹사이트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resbyterian Publishing Corp.,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entucky 40202-1396

/ [www.ppcbooks.com](http://www.ppcbooks.com)

편집자 박선규 목사

집필자 유승원 목사(시카고언약장로교회)

감수자 고창현 목사(토랜스제일장로교회), 김익태 목사(코네티컷한인교회)

## 차 례

편집자 노트 / 5

활용법 / 6

총론 / 8

제 1 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 . . . .	11
제 2 과 사랑, 예전에 참 좋았는데…… . . . . .	15
제 3 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 . . . .	19
제 4 과 구별된 삶 . . . . .	23
제 5 과 마음을 지키라 . . . . .	27
제 6 과 토기장이 하나님 . . . . .	31
제 7 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 . . . .	35
제 8 과 하늘로부터 온 편지 . . . . .	39
제 9 과 새 언약,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 . . . .	43
제10과 땅을 사는 마음으로 . . . . .	47
제11과 레갑 사람들의 아름다운 전통 . . . . .	51
제12과 고난 받는 사명자 . . . . .	55
제13과 이제 바벨론 차레다 . . . . .	59

한 쪽 귀를 통해서든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교회와 관련된 슬픈 소식들을 듣고 있고, 또 다른 귀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소식들을 접하고 있다. 때로 어둠과 빛이 서로 뒤질세라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교회의 어두운 소식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은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면서 떠나가고 있다. 이들을 가리켜 가나안(안나가) 성도들이라 하는 것 같다. 반면에,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행하고 계신 빛의 소식에 마음을 기울이는 자들은 여전히 소망 가운데 교회의 지체들로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서는 연대별로 기록되지 않았고, 또한 주제별로 기록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사가야 다음으로 긴 책이다. 따라서 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이 책의 많은 부분이 남유다의 죄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읽고 싶은 책도 아닐 것이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시대에 대해 예언하였다(사 60 : 1-2 참조). 지금 우리 세상에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와 같이 영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교회의 상황과 다를 것 없이 혹은 현재 교회 상황보다 더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가 가르쳐 줄 것이다. 예레미야는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깨우쳐 줄 것이다. 이 교재를 사용하는 교회들이 어둠이 짙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둠에 마음을 빼앗긴 채 부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사는 대신에,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에서도 한인 전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 이 책을 집필해 주신 유승원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켄터키 루이빌에서

박선규 목사

“킹덤 라이프”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며,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핵심이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배우고 훈련하기 위한 나눔식 소그룹 성경공부 교재이다. 말씀에 기초한 생각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깨달은 바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이 교재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 마음 열기

그날에 공부할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일상 속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먹한 분위기를 깨고 서로를 향해 그리고 말씀을 향해 마음이 열리게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 말씀 듣기

성경을 천천히 읽고 듣는 가운데 본문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 보는 단계이다.

- 1) 말씀 듣기는 두 번으로 되어 있다. 처음 읽을 때는 본문을 다 함께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읽기 전에 배경 설명과 도움말을 먼저 읽은 후에 본문을 읽는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책 안에 있는 지시를 따라 읽고 경청한다.
- 2)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느낌과 인상을 얻는다.



### 말씀 깨닫기

- 1) 말씀 깨닫기에 나오는 4개의 질문들은 성경 본문을 하나의 플롯으로 보도록 고안된 관찰 질문들이다.
- 2)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했지만, 간혹 배경설명이나 도움말을 참조해야 할 때가 있다.
- 3) 인도자 교재에는 관찰 질문들에 이어 해석 질문 및 본문과 자신을 연결시키는 질문들이 추가되어 있다. 이러한 추가 질문들은 말씀에 기초한 생각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변화의 시작인 생각을 새롭게 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가 질문들은 인도자가 모임을 강의나 교수식이 아니라, 나눔식으로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말씀 따라 살기

- 1)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나누는 과정이다.
- 2) 첫 번째 질문은 개인에게, 두 번째 질문은 공동체(교회, 이웃, 나라, 세계)에 적용하는 질문이다.
- 3) 말씀 깨닫기 단계에서 본인이 직접 깨달은 것이 있다면 교재에 실린 실천사항 대신 그것을 실천해도 좋다.

구약의 예언서들은 예언자들이 각기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그들의 신앙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 그리고 사회적 불의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둡고 침울하다.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서는 많은 신앙인들의 심장을 압박하는 중압감 때문에 특별히 더욱 부담스럽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던 시대의 예언자였다. 그는 요시아 때 시작해서 겨우 3개월 통치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이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눈이 뽑히고 시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시드기야의 시절을 다 겪어야 했다. 그 와중에 예레미야는 동족에 의해 계속해서 거부당하며 조롱받고 위협을 당하면서 40여 년간 힘겹게 사역을 하였다. 그는 바벨론과의 마지막 전쟁에서는 살아남지만 통곡하며 애가서를 써야 했고 전승에 따르면 결국 애굽에서 생애를 마감했다.

예레미야서에 수록된 예언은 연대순으로 나열되어 있지는 않지만 크게 예루살렘 멸망 이전(1:1-45:5)과 이후(46:1-52:34)로 나눌 수 있다. 후반부에는 주변 민족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까지 수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21세기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을 갖는 유다 왕국 시대에 던져진 어두운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구원의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읽는 것이 마땅하다. 예레미야서는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가는 어두운 터널의 과정이었다. 그 이후 역사는 이미 그 어두운 동굴을 벗어나 광명의 십자가 은혜를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주후 2,000년대를 사는 우리는 복음의 빛을 통해 그 이전의 어둠을 뒤돌아보며 현재에 적용하는 감사와 찬양으로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한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추어 구약의 사건들을 읽어 냈던 사도 바울의 해석과 적용의 관점이 우리에게 적절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전 10:11).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무서운 내용과 메시지로 마음을 어둡게

하느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을 위해 예레미야는 믿음 없는 죄인들에게 가려진 하나님의 속마음을 분명하게 밝혀 준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 : 11).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며 목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염두에 두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한다. 침울한 마음으로 비관적 절망만 감상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가장 암울해 보이는 예레미야서가 사실은 가장 희망적인 ‘새 언약’(렘 31 : 31-34)을 담고 있는 찬란한 서광(瑞光)의 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다. “…… 그 심령은 물 댄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도다 ……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렘 31 : 12-14).

제 1 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1 : 1~10)

제 2 과 사랑, 예전에 참 좋았는데……(2 : 1~8 ; 3 : 6~18)

제 3 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7 : 1~15, 21~23)

제 4 과 구별된 삶(9 : 23~10 : 10)

제 5 과 마음을 지키라(17 : 1~13)

제 6 과 토기장이 하나님(18 : 1~12)

제 7 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27 : 12~15, 28 : 1~11, 15~17)

제 8 과 하늘로부터 온 편지(29 : 1~14)

제 9 과 새 언약,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31 : 23~34)

제 10 과 땅을 사는 마음으로(32 : 1~15)

제 11 과 레갑 사람들의 아름다운 전통(35 : 1~19)

제 12 과 고난 받는 사명자(37 : 11~38 : 6)

제 13 과 이제 바벨론 차레다(40 : 1~3 ; 50 : 1~5 ; 51 : 29~32 ; 52 : 31~34)

B I B L E  
매일 성경 읽기

월요일 예레미야 1 : 1

예레미야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

화요일 예레미야 1 : 2

유다 어느 왕 때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

수요일 예레미야 1 : 3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까지 임했습니까?

---

목요일 예레미야 1 : 5

여호와께서 언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까?

---

금요일 예레미야 1 : 6

여호와의 말씀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

토요일 예레미야 1 : 8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

주 일 예레미야 1 : 10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위에 예레미야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

#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 : 1~10

## 찬송

497장(통 274장, 주 예수 넓은 사랑)

## 기도

인도자 혹은 자원자





## 마음 열기

교회에서 처음으로 직분이나 임무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 말씀 듣기

본문을 다 함께 읽은 후에 한 사람이 본문을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있는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경청합니다.

### — 배경설명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세습직이었다.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후손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그 신분을 유지했다. 반면 선지자는 지파나 직업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일을 시키시는, 본인 당대에 한정된 소명 직분이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3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아나돗에 살고 있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서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제사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가 제사장으로 일했다는 기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의 직분이 제사장으로 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로 바뀐 것이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활동하던 시기는 요시아 13년, 여호아하스 3개월,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긴 3개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11년 동안으로, 남유다가 몰락해 가던 질풍노도의 시기였다. 요시아의 일시적 개혁도 이 추세를 막지는 못했다.

### — 도움말

- 아나돗(1절) : 베냐민 지파에 위치한 레위 사람들의 성읍(수 21 : 18, 대상 6 : 60).
- 알았고(5절, 히 : 야다) : ‘야다’는 깨달음(창 3 : 7), 정보 인식과 경험(삼하 24 : 2), 인지(창 15 : 8), 익숙해짐(출 1 : 8, 욥 28 : 7), 성관계(창 19 : 8, 왕상 1 : 4), 선택(창 18 : 19) 등의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여기서는 ‘선택’의 의미로 사용됨.

- 슬프도소이다(6절, 히 : 아하) : 슬픔과 근심을 나타내는 ‘아아’(alas) 하는 소리.
- 아이(6절, 히 : 나아르) : ‘나아르’는 아기(출 2 : 6), 어린이(삼상 1 : 24), 청소년(창 37 : 2), 젊은이(삼하 2 : 14) 등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을 지칭하는데,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던 때는 20세쯤 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 말씀 깨닫기

1.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한 때는 언제였으며, 그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적 상황은 어떠했습니까?(2-3절, 배경설명 참조)

---



---

2.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첫 말씀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습니까?(5절)

---



---

3.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가 부정적으로 반응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7-9절)

---



---

4. 예레미야의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그의 부르심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은 여섯 개의 동사를 통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목적을 알려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9-10절)

---



---



## 말씀 따라 살기

1.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 한 주간 실천해 봅시다.
2.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남유다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고, 그 사명을 위해 우리 소그룹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 보고 실천해 봅시다.

B I B L E  
매일 성경 읽기

월요일 예레미야 2 : 2

이스라엘은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

화요일 예레미야 2 : 3

여호와와 의 소산 중 첫 열매는 누구입니까?

---

수요일 예레미야 2 : 5~7

여호와께서 억울한 듯 호소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목요일 예레미야 2 : 7

이스라엘이 더럽힌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

금요일 예레미야 2 : 8

여호와와 의 편에 서야 할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행했습니까?

---

토요일 예레미야 3 : 12

하나님은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

주 일 예레미야 3 : 17

훗날에 예루살렘은 무엇이라고 일컬어질 것입니까?

---